

## 경남 방언의 완전동화 현상<sup>\*,\*\*</sup>

김영선

— 차례 —

- |                |                 |
|----------------|-----------------|
| 1. 들어가기        | 3. 경남 방언의 완전동화와 |
| 2. 완전동화의 발생 환경 | 제약 조건           |
| 및 제약           | 4. 마무리          |

### 〈버리〉

이 글에서는 경남 방언의 활용형에서 볼 수 있는 완전동화의 발생 환경과 제약 조건을 다룬다. 완전동화는 국어의 방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일찍부터 기술되어 왔지만 특정 방언권을 대상으로 하여 전모를 밝히려는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활용형에서 완전동화가 발생하는 환경을 1) ‘애/에-+-아/어X’, 2) ‘오/우-+-아/어X’, 3) ‘이-+-아/어X’로 나누어서 현상의 발생 여부와 제약 조건을 살폈다.

논의 과정에서 첫째, 1음절로 된 어간이 ‘애/에’로 끝날 경우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는 환경에서 완전순행동화가 가장 전형적으로 실현됨을 재차 확인하였다.

둘째, 초성을 가진 1음절 어간이 ‘오’로 끝날 경우에는 완전역행동화를 겪는 반면 ‘우’로 끝날 경우에는 완전순행동화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1음절로 된 어간 활용형의 대부분은 모음 탈락이나 과도음화를 겪거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기저형이 그대로 도출되었다. 2음절로 이루어진 어간이 ‘오/우’로 끝날 경우에는 어간말 음절이 초성을 가진 환경에서는 완전역행동화를 경험하였다. 반면 초성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어간말 모음 ‘오/우’가 탈락하였다. 다만 대부분의 방언에서는 초성을 가진 경우에도 어간 모음 탈락을 경험하였다.

셋째, 어간이 모음 ‘이’로 끝나는 환경에서는 모두 완전순행동화를 경험하였다. 어간이 1음절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완전

순행동화 현상을 보여주었으며 2음절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몇몇 방언에서만 완전순행동화가 실현되었다. 어떠한 경우든 주도적인 현상은 어미의 모음 탈락이었다.

국어에서 볼 수 있는 완전동화는 개인별, 지역별, 세대별 편차가 크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점도 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게 만든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방언 연구에 따르는 다양한 문제점이거나 한계가 존재하고 또 토착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환경에서 의미 있는 연구는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기존의 언어 이론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이론적 틀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주제어: 경남 방언, 완전동화, 모음 탈락, 장모음화, 단모음화.

## 1. 들어가기

다음 (1)은 경남 방언에서 볼 수 있는 완전동화를 반영하는 전형적인 예들이다.<sup>1)</sup>

- (1) ㄱ. 깨(破)+어서→깨에서~깨:서, 세(強)+어서→세에서~세:서.  
ㄴ. 거두+아도→거다아도~거다:도, 모우+아도→모아도.

(1) ㄱ, ㄴ은 각각 어간이 ‘애-/에-’<sup>2)</sup>와 ‘오-/우-’로 끝날 때 어

---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이 글의 내용을 세세하게 지적해 주신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성조와 동화 및 탈락 현상과의 연관성, 자료에 대한 해석의 문제 등 지적된 사항을 일일이 반영하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1) 특이한 예를 제외하고는 편의상 자료의 인용 문헌을 밝히지 않는다. 경남방언연구보존회(2017)의 서지 표기는 이하 ‘경남보존(2017)’으로 표기한다. 자료를 인용하였으나 본문에 제시되지 않은 문헌 출처는 <참고 문헌>의 것으로 대신하기로 한다.

미 ‘-아X/-어X’가 결합할 경우 실현되는 완전동화를 반영하고 있다.<sup>3)</sup> 각각 고성과 동래 방언에 반영된 완전동화 현상은 대부분의 전국 방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찍부터 이들 현상과 관련된 음운론적 환경(최명옥 1998 : 105, 오종갑 2000 : 82~90)이나 제약 조건, 통시적 발전 과정(이진호 2002 : 106~119) 등이 기술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저간의 결과와 달리 완전동화를 다룬 연구 성과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설명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 (1)에서 보듯이 완전동화는 어간말 모음과 어미 첫 모음의 연쇄에서 실현된다. 그런데 동화에 뒤이어 보상적 장모음화가 실현된다는 점에서 완전동화는 보상적 장모음화를 유발하는 기제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음성적 동기를 가진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ㄱ의 ‘깨어서’에서 장모음화가 실현된 ‘깨:서’로의 도출이 모음 탈락이나 축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완전동화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sup>4)</sup>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또 (1)ㄴ의 ‘거두+아도→거다아도~거다:도’와 달리 ‘모우+아도→모아도’처럼 어간말 음절이 초성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완전동화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 등도 현상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항목이라 할

2) 경남 방언에서 발생하는 모음의 중화음은 따로 표시하지 않으며 표준어에 근거하여 표기한다.

3) ‘깨어서’와 ‘깨:서’의 정확한 발음과 표기 문제도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편의상 기존 논의를 따르기로 한다.

4) 이병근(1979 : 42)에서는 ‘꽤+어서→꽤서’를 통하여 모음 탈락 현상을 지지하고 있다. 이진호(2002 : 116~119)에서는 모음 탈락과 완전동화의 관점을 비교한 뒤 이론적 설명력을 근거로 완전동화를 수용하였다. 임석규(2003)에서도 어미의 성조가 동화 후에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근거로 완전동화로 처리하였다. 성조나 관련 음운 현상을 고려할 때 동남 방언의 설명을 위해서는 완전동화의 존재를 용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완전동화 현상은 개인별, 지역별, 세대별 편차가 대단히 크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sup>5)</sup> 동일 지역에서, 동일 방언 화자에게 서로 다른 도출형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완전동화의 기술을 더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경남 방언의 활용형에서 발생하는 완전동화 현상을 살펴 이 현상이 발생하는 환경과 제약 조건 등의 세부적인 특징 등을 다루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완전동화를 포함한 방언 연구가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특정 방언 현상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의의를 가지는 것은 해당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진행될 때라고 할 수 있다. 전국 방언의 등어화(isoglossization)(최범훈 1986 : 10)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완전동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 글에서 이용한 방언 자료는 완전동화 현상을 풍부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제보자 정보가 비교적 뚜렷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존 논의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 외 경남방언보존연구회(2017)와 신기상(20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3)의 것을 보조 자료로 사용하였다.

## 2. 완전동화의 발생 환경 및 제약

‘경남 방언’의 공시적인 범위를 제한하는 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못지않게 지역적으로는 ‘부산 방언’과 ‘울산 방언’이 과

---

5) 완전동화 현상이 개인적인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은 자료 채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의적인 발화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cf. ‘김 새서 못 하겠네’, ‘김 새에서 못 하겠네’.

언 실제적인 개념인가 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광역화된 진주나 전국적인 이주가 지속되고 있는 거제나 창원, 밀양, 양산 등지에서 방언의 ‘토속성’(이익섭 1984 : 66)을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명확한 해답을 내리기 어렵다.<sup>6)</sup> 경남 방언의 완전동화를 다른 저간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60~80대에 이르는 이상적이라고 판단되는 방언 화자를 제보자로 선정하고 있다. 이들은 토착민으로서 지역의 언어에 최적화된 제보자이므로 자료의 신빙성은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완전동화의 공식적 화자로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속하는 방언 화자에 대한 수용 문제는 현상을 논의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특정 지역에서 토착 화자로 성장했다 하더라도 방언의 등어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현재의 시점에서 고전적인 의미의 제보자로서의 가치는 훨씬 떨어지기 때문이다. 완전동화가 보고된 부산 방언의 박지홍(1974)과 김고은(2016)에서 제보자로 선정된 70~80대의 화자는 거의 40년의 시간적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김고은(2016 : 36~37)에서 제시한 다음 예는 거의 50년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2) ㄱ. 데(接)+어서→데서(HLL), 데+어야→테야(HLL).

메(束)+어서→메서(HLL).

ㄴ. 데(接)+어서→데서(LH), 데+어야→테야(LH).

메(束)+어서→메서(LH).

70~80대 방언 화자를 통해 확보한 예 (2)ㄱ에서는 완전동화가 반영되어 있으며 20대 방언 화자의 도출형 (2)ㄴ에서는 어미 첫모음 ‘어’의 탈락<sup>7)</sup>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특정 음

6) 방언 연구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영선(2015) 참조.

7) 김고은(2016 : 36)에서는 이를 완전동화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동화에 따른 장모음화와 단모음화를 가르는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에서와 같이 탈락으로 이해한다.

운 현상을 다루는 일은 그것을 실제로 구현화하고 있는 방언 화자에 국한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전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 성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제시된 자료를 공식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수용하기로 한다.

국어의 활용형에서 발생하는 완전동화는 비교적 일찍부터 발생 환경이나 과정, 결과 등이 기술되어 왔다. 경남 방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논의에서 언급된 바 있다. 다음은 완전동화가 발생 가능한 이론적 환경이다.

- (3) ㄱ. 아/어-+-아/-어X.  
ㄴ. 애/에-+-아/-어X.  
ㄷ. 오/우-+-아/-어X.  
ㄹ. 이-+-아/-어X.  
ㅁ. 으-+-어X, 어/아/오/우/이-+-으X.

예 (4)는 (3)ㄱ의 환경과 관련된 것들이다.

- (4) ㄱ. 가+ 아X→가X~\*가아X~\*가:X, 서+ 어X→서X~\*서어X~\*서:X.  
ㄴ. 쌓+ 아X→\*싸X~싸아X~싸:X, 영:(入)+ 어X→\*여X~여어X~여:X.  
ㄷ. 가라(垂)+ 아서→가라아서, 가무타+ 아서→가무타아서(경남보존 2017 : 20, 25).

(4)ㄱ에서 발생하는 모음 탈락은 ‘나+ 아→나아(釋6:11)~나(金剛51), 서+ 어서→서어서(三綱烈13)~서셔(觀音34)’의 예에서 보듯이 이미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볼 수 있다. 이 지역 방언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가아X, 서어X’ 등으로 발음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의 모음 탈락은 완전동화나 보상적 장모음화의 동기로 볼 수 없다.<sup>8)</sup>

---

8) 경남보존(2017 : 25)에서 제시한 부산 방언의 ‘가무타아서’는 ‘가무티+

(4)ㄴ은 어간말 모음과 어미 첫 모음이 같은 모음이라는 점에서 어간말 ‘ㅎ’의 탈락에 이은 동일 모음 탈락을 예상할 수 있다. (4)ㄴ의 동일 모음 탈락은 (4)ㄱ의 동일 모음 탈락과 달리 보상적 장 모음화를 위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음성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sup>9)</sup> 소수의 예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4)ㄷ과 같이 2음절 이상의 어간이 ‘아’로 끝날 경우에는 (4)ㄱ과 달리 동일 모음 탈락을 경험하지 않는다. (4)ㄷ에 속하는 대부분의 예는 어간말 음절이 ‘이’로 끝나는 이형태를 가진다는 특징을 공유한다. 이들 예는 /가리+아서, 가무티+아서/에서 완전동화를 거쳐 [가라아서]와 [가무타아서]로 도출된 뒤 /가라-/와 /가무타-/로 어간이 재구조화한 후<sup>10)</sup> 어미 ‘-아서’가 공시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완전동화를 겪지 않는 이들 예는 이 글의 논의에서 배제된다.<sup>11)</sup>

(3)ㄴ의 ‘애/에-+ -아/어X’와 관련된 예는 다음과 같다.<sup>12)</sup>

(5) ㄱ. 깨+아X→깨애X~깨:X, 폐:(伸)+어X→폐애X~폐:X.

ㄴ. 달개+아X→달개애X~달개:X~달개X, 지내+아X→지내X  
~\*지내애X~\*지내:X.<sup>13)</sup>

아서’로 분석할 수 있다. ‘가무티다. 가무치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 유형의 어간 분석 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9) 각각의 경우 한영균(1988 : 16)에서는 어휘부 음운 규칙과 후어휘부 음운 규칙으로 그 성격을 정의하고 있다. 엄태수(1999 : 403)에서는 비음절 음운 규칙과 음절 음운 규칙으로 구분하여 음성적 동기를 밝히고 있다.

10) ‘가라다, 가무타다’처럼 창원 방언에서는 경남의 다른 하위 방언에서 ‘가리다, 가무티다’ 같이 어간말 모음이 ‘-이’로 실현되는 용언이 ‘-아’로 실현되는 예가 풍부하게 발견된다. 사적 검토가 필요하다.

11) 익히 알려진 것처럼 (4)ㄱ의 예는 15세기 이후 지속적인 표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한영균(1988 : 16)에서는 어휘부 음운규칙인 동일 모음 탈락 규칙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활용 패러다임이 공시적인 것과 통시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12) 김동은(2018 : 37)에서는 70~80대에서는 ‘애’와 ‘에’의 변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완전동화 현상에 대해서는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5)는 ‘애/에’로 끝나는 1음절과 2음절 어간 활용형에서 발생하는 완전동화의 예들이다. (5)ㄱ에서는 완전동화가 발생하며 보상적 장모음화가 계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반면 (5)ㄴ과 같이 2음절 어간의 경우에는 완전동화가 발생하는 예와 그렇지 않은 예가 공존한다. (5)ㄴ의 ‘지내+아X’에서는 ‘달개-’와 달리 완전동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달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완전동화가 개인적인 발화 특성이 강한 현상임을 암시하고 있다.<sup>14)</sup>

(3)ㄷ의 ‘오/우--+아/어X’와 관련된 예는 다음과 같다.<sup>15)</sup>

(6) ㄱ. 오+아X→와X~아X~오X.<sup>16)</sup>

ㄴ. 뽀우+아X→뽀아X, 모우+아X→모아X.<sup>17)</sup>

ㄷ. 꼬:(攬)+아X→꼬아X~까아X~까:서, 보+아X→바아X~바:X.

13) ‘지내서’에서 발생하는 과정은 박정수(1999 : 98)에 따르면 ‘달개+어서→달개에서→달개:서~달개:서’가 될 것이다. ‘달개에서’에서 ‘애’의 탈락은 이진호(2002 : 119)의 관점에서는 장모음화와 단모음화를 결정하는 특정 정보가 요청된다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완전동화가 아닌 경우에는 편의상 인용 문헌의 주장에 따라 모음 탈락으로 해석한다.

14) 이효신(2004 : 33)에서는 ‘지새-, 포개-’ 등 어간말 모음이 ‘애’로 끝나는 동래 방언의 예에서 완전동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신기상(1986 : 53~54)의 울산 방언에서는 ‘바래도, 지내도, 만내도, 놀래도’와 달리 ‘자래:도, 달개:도, 포개:도, 지대:도, 문때:도’처럼 완전동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특징은 이 환경에서 완전동화가 개인적, 지역적 편차가 상당함을 암시하고 있다.

15) 경남 방언에서는 2음절 이상의 어간말 모음이 ‘오’로 끝나는 예는 발견하기 쉽지 않다. 김형춘(1993 : 88)에서 ‘꼬리보+어도→꼬리보+아도→꼬리바아도’를 찾아볼 수 있다. 경남 방언에서 ‘꼬리보다’는 ‘꼬나보다, 꼬라보다, 풀치보다’ 등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꼬리, 꼬나, 꼬라, 풀치’ 등에 후행하는 ‘보다’는 (6)ㄷ의 유형에 속한다.

16) ‘오X’는 함안 방언, ‘아X’는 통영 방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구현옥 2018 : 303). 둘 다 모음 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

17) 신기상(1986 : 163~164)에서 볼 수 있는 ‘뽀우+아→뽀아~뽀:, 모우+아→모아~마:’는 모음 탈락에 의해 도출된 활용형에 대해 완전동화와 장모음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ㄹ. 뿌수+ 아X→뿌사아X~뿌사:X, 모두+ 아X→모다아X~모다:X.  
 ㄴ. 묵+ 어X→무우X~무:X, 좇+ 어X→주우X~주:X, 놓+ 아X→  
 노아X~나아X~나:X.

(6) ㄱ, ㄴ은 각각 1음절과 2음절로 이루어진 어간의 끝 음절이 초성을 가지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완전동화를 보여주고 있다. (6)ㄱ에서는 과도음화나 어간, 또는 어미 모음의 탈락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 (6)ㄴ의 경우에는 어간말 음절 ‘우’가 탈락하면서 완전동화나 보상적 장모음화와는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ㄷ, ㄹ에서는 완전동화가 발생하는데 (6) ㄱ, ㄴ을 고려할 때 어간말 음절의 초성 유무가 완전동화의 제약을 결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신기상 1986 : 165~166). 한편 (6)ㄴ은 각각 ㄱ, ㄴ, ㅎ으로 끝나는 어간말 음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완전동화의 예들로<sup>18)</sup> 환경만 주어지면 어떤 경우든 발생함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어간말 음절이 ‘오/우’이면서 ‘-아/어X’가 결합할 때 나타나는 기본적인 현상들을 살폈다. 오종갑(2000 : 85)에서는 산청 방언의 경우 이 환경에서 완전동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남 방언 대부분에서 완전동화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개별 방언 연구가 그것이 속한 다른 방언과의 전체적인 연계 속에서 기존 연구 결과와 함께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3)ㄹ의 ‘이-+ -아/어X’와 관련된 예들은 다음과 같다.<sup>19)</sup>

18) 박덕철(1993 : 61~62)에서 합천 방언의 ‘놓아도→나아:도’, ‘좋아도→조아도’를 제보하고 있다. ‘나아:도’는 ‘나아도’나 ‘나:도’의 오기로 보인다. 어간말 자음이 ‘ㄱ, ㄴ’로 끝나는 불규칙 용언은 실현 빈도가 낮으므로 이 글에서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19) 피동 접미사 ‘이’가 개재된 활용형에서도 완전동화가 실현된다. cf. 날+리+ 어도→날리이도, 잡+ 히+ 어도→잡히이도(신기상 1986 : 158). 이 글에서는 피, 사동 활용형을 일반 활용형과 구분 없이 기술한다.

- (7) ㄱ. 시:(休)+ 어X→시이X~시:X, 피(發)+ 어X→피X~피이X~피:X.  
 ㄴ. 까래비+ 어도→까래비도, 들리+ 어도→들리도.  
 ㄴ'. 가리+ 어도→가리이도, 비비+ 어도→비비:도, 따시+ 어도→  
 따시:도.<sup>20)</sup>  
 ㄷ. 지(敗)+ 어X→지X~저X, 찌+ 어X→찌X~쩌X, 치+ 어X→쳐X.  
 ㄹ. 디지(死)+ 어X→디지X~디저X, 가리치+ 어X→가리치X~가  
 리쳐X.

(7)ㄱ은 1음절 어간이 ‘이’로 끝날 경우 어간말 ‘이’ 탈락이나 어미 ‘어’의 완전동화, 또는 탈락 등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2음절 어간이 ‘이’로 끝나는 (7)ㄴ에서는 어미 모음 ‘어’가 탈락한다. 반면 (7)ㄴ'에서는 완전동화와 보상적 장모음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들 예는 2음절 이상의 어간이 모음 ‘이’로 끝날 경우에는 완전동화가 임의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7) ㄷ, ㄹ에서는 ‘지, 치, 찌’에 어미 모음이 올 때 어간말 모음 ‘이’나 어미 모음 ‘아/어’의 탈락을 보여주고 있다. 최명옥(1998 : 375)에서는 2음절 이상의 어간이 ‘이’로 끝날 경우 어미 ‘어’의 완전동화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 방언에서는 (7)에서 보듯이 지역에 따라 어미 모음 ‘아’의 탈락이나 완전동화가 각각 실현됨을 목격할 수 있다.<sup>21)</sup>

(3)ㄹ의 ‘으-+ -어X’, ‘아/어/오/이-+ -으X’와 관련된 예는 각각 다음 (8), (9)와 같다.

20) ‘들리(訪)+ 어도→들리도, 지다리+ 어도→지다리도, 간추리+ 어도→간추리도, 꾸부리+ 어도→꾸부리도’(신기상 1986 : 53)처럼 울산 방언의 경우 어간이 ‘이’로 끝나는 2음절 이상의 활용형에서는 완전동화보다 모음 탈락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1) 경남보존(2017 : 22)에서는 ‘가리어서→가리서/가라아서’, ‘가리어야→가리야/가라아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경남보존(2017 : 20)에서는 마산, 진해, 창녕, 창원 등지에서 사용하는 ‘가라다’를 제시하고 있다. ‘가라+ 어서→가라아서, 가라+ 어야→가라아야’. 따라서 어간이 ‘이’로 끝나는 활용형에서는 어미 모음 ‘아/어’의 탈락이나 완전동화가 기본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 (8) ㄱ. 떠(浮)+ 어떤→떠면, 커(大)+ 어떤→커면.  
 ㄴ. 싸(封)+ 어떤(어모)→싸면, 써(用)+ 어떤→써면.  
 (9) ㄱ. 쌓+ 어떤(어모)→싸아면~싸:면, 닿+ 어떤(어모)→다아면~다:면.  
 ㄴ. 좋+ 어떤(어모)→조오면~조:면, 놓+ 어떤(어모)→노오면~노:면/나아면~나:면, 줏+ 어떤→주우면~주:면, 묵(食)+ 어떤→무우면~무:면.  
 ㄷ. 끼+ 어떤(어모)→끼면, 비+ 어떤(어모)→비면.  
 ㄹ. 다니+ 어떤(어모)→다니면, 땡기+ 어떤(어모)→땡기면.  
 ㄹ. 짓+ 어떤(어모)→지이면~지:면, 잇+ 어떤(어모)→이어면(어모)~이이면~이:면.<sup>22)</sup>

(8)ㄱ은 어간말 모음 ‘어’가 ‘으’에서 기원한 것으로 어간말 모음 탈락을 경험한다. (8)ㄴ은 어미 첫 모음 ‘어’도 ‘으’에서 기원한 것으로 이 경우에는 어미 첫 모음의 탈락을 경험한다. (9) ㄱ, ㄴ에서는 어간이 ㄱ, ㄴ, ㅎ로 끝나는 활용형에서 ‘놓어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가 완전순행동화를 겪고 있다. 이들 예는 앞서 살핀 ‘오/우-+ -아/어X’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완전순행동화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 어간이 ‘이’로 끝나는 (9) ㄷ, ㄹ에서는 완전동화보다 어미 모음의 탈락을 경험하고 있다. 반면 (9)ㄹ에서와 같이 어간이 ㄴ으로 끝나는 용언의 경우 ㄴ의 탈락 이후에 완전동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도 완전동화를 경험한다.

(9)에서 제시한 ‘으-+ -어X’, ‘아/어/오/이-+ -으X’의 환경은 어간말 모음 ‘어’와 어미 ‘어’가 기원적으로 ‘으’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탈락을 예상할 수 있다. 그 외 어간이 ㄱ, ㄴ, ㅎ, ㅎ로 끝나는 용언에서 발생하는 완전동화는 기본적으로 완전순행동화를 경험하나 실현 빈도수가 적으며 하위 방언의 특성을 드러

22) ‘깨에레서(양산), 깨어레서(울주), 깨어러서(김해)’(이근열 1997)에서 어간형은 ‘깨에레-/깨어레-/깨어러-’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내는 데 큰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기술하지 않는다.

경남 방언에서 완전동화가 발생하는 환경<sup>23)</sup>을,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규칙의 성격과 함께 정리하면 (10)과 같다.

(10) 경남 방언의 완전동화 환경<sup>24)</sup>

출현 환경		방향성	적용 규칙	예
애/에--+ -아/어X	1음절 어간	순행	완전동화	깨에서
	2음절 이상	순행	완전동화	달래애도
오/우--+ -아/어X	1음절 어간	순행	완전동화	꾸(夢)우라
	2음절 이상	역행	완전동화	거다아도
			어간 모음 탈락	배아도
이--+ -아/어X	1음절 어간	순행	완전동화	비(割)이도
	2음절 이상	순행	완전동화	비비이도
			어미 모음 탈락	땡기도

### 3. 경남 방언의 완전동화와 제약 조건

#### 3.1. ‘애/에--+ -아/어X’에서의 완전동화

‘애/에--+ -아/어X’의 환경에서 실현되는 완전동화는 대부분의 경남 방언에서 볼 수 있을 만큼 전형성을 띤다. 다음은 어간이 1음절과 2음절로 이루어진 관련 예이다.

- (11) ㄱ. 깨(醒)+ 아도→깨애도, 매(結)+ 아도→매애도, 쏜(伸)+ 어서→쏘에서, 데(接)+ 어서→데:서, 데+ 어야→데:야.

23) 배병인(1983 : 82~83), 최명옥(1998 : 375~376), 오종갑(2000 : 82~90) 등에서는 경남 하위 방언권에서 발생하는 완전동화의 환경을 각각 제안하고 있다. 이 글과 큰 차이는 없다.

24) 김동은(2015 : 36)에서는 하동 지역어에서는 ‘애’와 ‘에’의 변별이 가능하다고 보고 어간말 모음에 따라 어간의 유형을 /X애/류와 /X에/류로 나누었다. ‘애’와 ‘에’를 구분하지 않아도 본 논의에는 지장을 받지 않는다.

ㄴ. 달개+아도→달개애도, 보내+어서→보내에서, 쪼개+어서→쪼개에서.

고성 방언의 예 (11)ㄱ과 부산 방언의 예 (11)ㄴ에서 보듯이 어간말이 ‘애/에’로 끝나는 활용형에서는 완전동화가 적극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남 하위 방언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1음절 어간으로 이루어진 환경에서 완전동화가 발생하는 하위 방언과 활용 어간들이다.

(12) ㄱ. 발생 지역: 울산, 양산, 부산, 밀양, 고성, 창녕, 거창<sup>25)</sup>, 함양, 사천, 진주, 하동, 산청.

ㄴ. 관련 어휘: 개-, 게(醱酵)-, 캐-, 깨(醒)-, 깨:(破)-, 깨(貫)-, 내:(出)-, 데(成)-, 데/대(接)-, 때-, 떼(離)-, 매(除草)-, 매(係)-, 메-, 배(孕)-, 빼(拔)-, 새(風)-, 세(強)-, 세(歲)-, 예(臧)-, 재(尺)-, 쪼(火)-, 펴(伸)-.

(12)와 같은 예를 통해 박정수(1999 : 99)에서는 완전동화를 필연적, 보편적인 것과 임의적, 한정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하위 방언권을 구획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2)는 ‘애/에+ -아/어X’의 환경과 관련된 예를 제한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서 개별 방언에서의 전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관련 연구에서는 완전동화보다 ‘캐(燈)+ 어서→캐서’와 같이 모음 탈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13)과 같은 자료가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상에 대한 일관된 논의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3) ㄱ. 발생 지역: 울산, 양산, 부산, 김해, 거제, 거창, 진주, 산청.

ㄴ. 관련 어휘: 개-, 깨-, 데(成)-, 배(孕)-, 베-, 새(歲)-, 재-, 캐(燈)-, 펴(伸)-.

25) ‘개+어도’는 ‘개애도’와 ‘캐도’가 함께 발견된다(박명순 1987 : 80~85).

(13)은 ‘애/에--+아/어X’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음 탈락을 보여주고 있다. 김고은(2016 : 36)에서는 (14)를 통해 부산 방언에서 발생하는 완전동화가 노년층에서만 발생하는 것임에 반하여 모음 탈락은 청년층에서 발생하는 현상임을 지적하였다.

- (14) ㄱ. 데(接)+ 어서→데서(HLL), 데+ 어야→데야(HLL).  
          메(東)+ 어서→메서(HLL).  
      ㄴ. 데(接)+ 어서→데서(LH), 데+ 어야→데야(LH).  
          메(東)+ 어서→메서(LH).

(14)ㄱ은 70~80대의 연령층에서 경험하는 완전동화를 반영한 예인 반면 (14)ㄴ은 20대의 연령층이 경험하는 모음 탈락을 반영한 예이다. 이러한 차이는 완전동화가 세대차에 따라 적용 유무가 결정되는 현상임을 의미한다. 한편 완전동화를 반영하는 (15)ㄱ은 70~80대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인 반면 모음 탈락을 경험하는 (15)ㄴ은 20~50대에 걸친 화자의 것이다.

- (15) ㄱ. 깨(醒)+ 아도→깨애도, 새(風)+ 아도→새애도, 썰(火)+ 아도→썰애도.  
      ㄴ. 캐(燈)+ 어서→캐서, 내+ 어서→내서, 내+ 어라→내라.

(14)와 (15)의 예는 완전동화가 세대에 따라 적용 유무가 결정되는 현상임을 말해 주고 있다. 물론 (13)의 하위 방언에서 발생하는 모음 탈락이 모두 청년층 발화에서만 실현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13)의 예가 실현된 방언이 (12)와 극히 다른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좀 더 정확한 연령대나 발화 환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14), (15)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발화형이 세대차를 반영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결국 경남 방언에서 발생하는 완전동화는 노년층에 국한된 현

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진호(2002 : 114~119)에서는 이들 현상을 통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5)ㄱ을 포함하여 (15)ㄴ에서 발생하는 모음 탈락까지 완전동화의 연계 규칙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15)ㄴ에는 완전동화에 이어 단모음화하는 과정이 도입되어야 한다(김고은 2016 : 43). 그러나 (15)ㄱ과 (15)ㄴ이 각각 장모음화와 단모음화를 수용하는 음성학적, 음운론적 근거는 분명하지 않다. 모음 탈락의 음성학적, 음운론적 이유 또한 분명하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차이가 세대별 편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한다.

다음은 ‘기대+어서→기대에서’와 같이 어간말 음절이 ‘애/에’로 끝나는 2음절 어간 활용형에서 완전동화를 경험하는 하위 방언과 관련 어휘들이다.

- (16) ㄱ. 발생 지역: 울산, 양산, 부산, 고성, 거창, 사천, 하동, 산청.  
 ㄴ. 관련 어휘: 기대-, 꾸개(皺)-, 놀래-, 달래(勑)-, 달개(說)-, 달개(撫)-, 동개(疊)-, 만내-, 모지래-, 문때(磨)-, 보내-, 지대(依)-, 주깨(喧)-, 쪼개-, 포개-.

‘애/에’로 끝나는 2음절 어간의 활용형에서 발생하는 완전동화를 겪은 방언은 (16)에서 보듯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1음절 어간 활용형에서와 같이 완전동화는 이 환경에서도 활발하게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17)의 예는 ‘보내+어서→보내서’와 같이 어미의 모음 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들이다.

- (17) ㄱ. 발생 지역: 울산, 양산, 부산, 김해, 창녕, 진주.  
 ㄴ. 관련 어휘: 놀래-, 달개-, 달래-, 만내-, 바래(望)-, 보내-, 지내-, 포개-.

(17)과 같이 모음 탈락을 경험하는 방언이나 예가 제한적인데 이는 해당 연령층 화자에게 완전동화가 모음 탈락보다 지배적인 현상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특히 부산 방언에서 보고된 (17)ㄴ의 예는 20~50대에 해당하는 청년층에서 보고된 것임을 고려할 때 이 또한 (14)ㄴ, (15)ㄴ을 포함하여 세대별 편차를 반영하는 예로 간주할 수 있다. (16)ㄱ, (17)ㄱ에서 보듯이 울산, 양산, 부산 방언에서는 완전동화와 모음 탈락이 동시에 보고되고 있다. 동일한 환경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이유가 어휘적인 특징에 있는지, 말투나 제보자의 상이함 같은 언어 외적인 문제에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동일한 환경에 대해 현상이 달리 나타난다는 것 또한 규칙의 개신이 점진적으로 진행됨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애/에-+ -아/어X’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완전동화가 경남 하위 방언에서 실현되는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6)</sup>

(18) ‘애/에-+ -아/어X’에서의 완전동화 관련 현상<sup>27)</sup>

지역	1음절 어간		2음절 이상		관련 예	
	실현 여부	방향	실현 여부	방향		
울산	○	순행	○	순행	깨서, 새서, 깨(破)애	보내애

26) 박정수(1999 : 99)에서는 2음절보다 1음절 어간의 경우가 더 전형적인 환경임을 지적하면서 완전동화의 성격을 임의적과 필수적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완전동화 현상이 개인별, 지역별, 세대별 편차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필수적, 임의적 등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객관적인 결과만을 제시한다.

27) ○은 완전동화의 실현을, X는 실현되지 않음을, -는 예가 보고되지 않음을 뜻한다.



양산	○	순행	○	순행	깨, 새서, 빼(拔):도	달개:도, 포개:, 만내도
부산	○	순행	○	순행	깨애라, 데(接)에서	달래애도, 쪼개애도
밀양	○	순행	-		매애라, 개애라	
김해	○	순행	X	탈락	새서, 캐라, 메:	달개야, 때래서
창녕	○	순행	X	탈락	깨에서	포개서
창원	-		-			
함안	X		-		깨아서	
거제	X		-		쌌다(쇠었다)	
통영	-		-			
고성	○	순행	○	순행	깨에서, 메에서	달개에서, 포개에서
의령	-		-			
합천	-		-			
진주	○	순행	X		베도, 깨애도	보내라
사천	○	순행	○	순행	매에서, 세에서	주개에서, 달래에서
남해	-		-			
하동	○	순행	○	순행	매애도, 떼애도	깨배애도, 달개애도
산청	○	순행	○	순행	매애도, 깨(破)애도	기대애도, 달개애도
함양	○	순행	-		매:서, 재:서	
거창	○	순행	○	순행	배애도	만내애도, 달개애도

(18)을 통해 ‘애/에-+-아/어X’에서의 완전동화는 모두 순행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박정수(1999 : 99)에서는 1음절 어간 활용형에서 발생하는 완전동화가 밀양, 양산, 김해, 창원, 함안, 진주, 하동, 남해, 고성, 통영, 거제 지역에서 필연적,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18)에서와 같이 기존의 자료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분포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현상의 성격에 대한 판단 또한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3.2. ‘오/우-+-아/어X’에서의 완전 동화

‘오/우-+-아/어X’ 환경에서 발생하는 완전동화와 관련된 예는 다음과 같다.

- (19) ㄱ. 보+어도→바아도, 쏘+어도→싸아도.  
 ㄱ'. 주+어도→주우도, 두+어도→두우도, 꾸+어도→꾸우도.  
 ㄴ. 오+어도→오오도.
- (20) ㄱ. 모우+아→모아, 채우+어→채아, 피우+어→피아.  
 ㄱ'. 울구+아→울가, 일구+아→일가.  
 ㄴ. 낫추어→낫차아, 낫추어라→낫차아라.

(19)는 1음절 어간으로 이루어진 활용형으로 모두 완전동화를 수반하고 있다. ㄱ, ㄱ'는 어간말 음절이 초성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ㄴ은 어간이 모음 음절로만 이루어진 경우이다. 거창 방언과 같이 특정 방언에서는 어간말 음절의 초성 유무에 상관없이 완전동화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방언에서 어간말 음절의 모음이 '오'냐 '우'냐에 따라서 동화의 방향이 결정된다. 동사 '오-'는 1음절로 된 어간이 모음 '오'로만 구성된 유일한 예로서 (21)~(24)와 같이 각 방언에서 실현되는 양상이 다르다.

- (21) ㄱ. 오+아도→와도(양산, 울산, 창녕, 함천, 고성, 하동, 산청, 함양).  
 ㄴ. 오+아도→오오도(밀양, 거창).  
 ㄷ. 오+아도→오도(창원, 함안).  
 ㄹ. 오+아서→아서(부산).  
 ㅁ. 오+아서→아서(사천).  
 ㅂ. 오+아서→아서/와서(통영).

위 예에서 보듯이 '오+아서'는 '와X', '오오X', '오X', '아X'류로 실현되는데 대부분의 방언에서 '와X'류가 출현한다. '오오X'와 같이 완전동화를 경험하는 경우는 밀양, 거창 방언에 국한되어 있으며 대체로 '와X' 형태를 띠고 있다. '와X', '오오X', '오X', '아X'도 출형을 단일 기저형을 기반으로 일관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와X'류가 과도음화를 경험하는 반면 '오X'류는 어미 탈락을, '오

오X'류는 완전동화를, '아X'류는 어간 모음 탈락을 각각 경험하는 것으로 기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헌을 통해 대부분의 방언이 보이는 '와X'류는 중세국어 이후 고정된 형태로 실현되어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영선(1999 : 77)에서는 이들이 '보-'류와 달리 보상적 장모음화를 경험하지 않으며 중세국어 이후 고정된 형태를 유지했음을 근거로 '와-'를 '오-'와 함께 복수 어간 기저형으로 처리하였다. '아X'류의 경우는 중세국어 이후 복수 어간 이형태로 고정된 '와 wa'에서 w가 탈락하면서 어간이 '아-'로 재구조화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sup>28)</sup> 한편 '오오X'와 '오X'류의 경우 '오+아서'에 대해 완전동화와 모음 탈락이 각각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29)</sup> 함안과 통영 방언에 대해 구현옥(2018 : 303)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25) ㄱ. (통영) 오+아서→와서/아서(40대), 와서/아서(60대), 아서(80대).

ㄴ. (함안) 오+아서→오서(40대, 동부 지역 60대, 80대), 와서(서부 60대).

통영 방언에서는 '아서'가 40-80대에 걸쳐 모두 사용되는 반면 40~60대에는 '와서'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이는 '아서'가 '와서'로 단일화하는 과정임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함안 방언에서도 전 연령에 걸쳐 '오서'가 나타나지만 60대에 '와서'가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오서'에서 '와서'로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28) 물론 이 경우에도 완전역행동화로 처리하여 '아아X→아X'로 단모음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장모음화와 단모음화를 가르는 기준이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29) '오오X'류와 '오X'류에 대해서도 완전동화를 통해 설명할 경우 장모음화와 단모음화의 적용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로 해석할 수 있다.

경남 방언의 하위 방언에서, ‘꾸+ 어라→꾸우라’와 같이 1음절 어간이 초성을 가진 ‘오/우-+ -아/어X’의 환경에서 완전동화가 발생하는 관련 방언과 예는 다음과 같다.

- (26) ㄱ. 발생 지역: 울산, 양산, 부산, 밀양, 함안, 함천, 사천, 고성, 거창, 통영, 함양, 하동.

ㄴ. 관련 어휘

- ① 고+ 아→가:, 꼬+ 아서→까아서, 보+ 아→바아~바:, 쏘+ 아도→싸아도.  
② 꾸(夢)+ 어서→꾸우서, 두+ 어서→두우서, 주+ 어도→주우도, 푸+ 어도→푸우도.

경남 방언에서는 초성을 가진 1음절 어간 활용형에서 발생하는 완전동화의 발생 유무가 어간말 모음이 ‘오’ 또는 ‘우’에 따라 결정됨을 (26)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어간말 모음이 ‘오’일 경우에는 대체로 완전역행동화를 경험하는 반면 어간말 음절 모음이 ‘우’일 경우에는 완전순행동화를 경험한다.<sup>30)</sup> 이러한 제약 현상은 (27)과 같이 어간이 ㄱ, ㅂ, ㅅ, ㅇ, ㅎ로 끝나는 용언의 활용형<sup>31)</sup>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27) ㄱ. 발생 지역: 울산, 양산, 부산, 김해, 밀양, 창원, 고성, 거창, 함천, 사천, 남해, 산청.

---

30) 김택구(1991 : 57~59)에서는 ‘누+ 어라→너어라(거창, 함양), 누우라(창녕, 밀양, 함안, 창원, 거제, 김해), 노오라(울산, 양산, 경남 서부 일대)’와 ‘주어라→저어라(거창, 함양), 주우라(창녕, 밀양, 함안, 창원, 거제, 김해), 조오라(울산, 양산, 경남 서부 일대)’를 제시하고 있다. ‘너어라, 저어라’는 이 글에서 주장한 것 같이 순행동화가 아닌 역행동화를 경험한다. 좀 더 정밀한 조사를 요한다.

31) ‘ㅎ’의 음소로의 수용 문제나 ㄱ, ㅅ, ㅇ, ㅎ 불규칙 용언의 허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용된 자료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다.

ㄴ. 관련 어휘

- ① 놓+아라→나아라, 놓+아도→나아도.
- ② 꿈+어라→꾸우라, 꿈+어→꾸우, 눅+어라→누우라, 눅+어→누우, 묵+어라→무우라, 죽+어도→주구도, 중+어→쭈우, 중+엿+다→쭈운따, 좇+어라→주:라, 붓(注)+어서→부우서, 붓+어→부우, 붓+엿+다→부운따, 풍(喫煙)+어→푸우.

(27)ㄴ은 어간이 ㄱ, ㅂ, ㅅ, ㅇ, ㅎ로 끝나는 용언의 활용형에서도 완전동화가 발생함을 보여주고 있다. ①의 ‘놓-’와 같이 어간말 모음이 ‘오’로 끝날 경우에는 모든 하위 방언에서 완전역행동화를 겪는 반면 ②와 같이 ‘우’일 경우에는 울산, 양산 방언을 제외한 모든 방언에서 완전순행동화를 경험함을 볼 수 있다. 어간말 모음에 따른 이와 같은 제약이 어떠한 이유로 동화의 방향성을 제어하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반면 다음 예는 (26)과 같이 초성을 가진 1음절 어간이 ‘오/우’로 끝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간과 어미 결합형이 그대로 실현되거나 모음 탈락이나 축약, 첨가 등의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 (28) ㄱ. 발생 지역: 울산, 양산, 부산, 김해, 밀양, 창녕, 함안, 의령, 거제, 통영, 거창, 산청, 함양, 남해, 하동.

ㄴ. 관련 어휘

- ① 어간+어미 결합형: 꼬아라, 꾸아도, 꼬안따, 꾸언따, 노안따, 모아도, 붓+아도→부아도, 붓+어서→부아서, 뽀아도(碎), 쪼아도, 수아도(射), 추아도(舞), 풍(喫煙)+아서→푸아서.
- ② 어미 모음 탈락: 꾸(借)+어→꾸, 꾸(夢)+어서→꾸서, 누+어서→누서, 두+어도→두도, 뽀+어서→뽀서, 묵+어라→무라, 보+어도→보도, 붓+어라→부라, 소+아라→쭈라/소라, 쏘+어도→쏘도, 쭈+어서→쭈서, 주+어서→주서.
- ③ 어간 모음 탈락: 꼬+아서→까서, 꾸+엿+다→꺄따, 놓+아라→나라, 보+아서→바서, 보+앗+지→봇지, 쏘+앗-

→쫘-, 쏘+아서→싸서, 푸+어→퍼.

④ w 첨가: 꼬+았+다→꼬와따/꾸와따, 소+아서→소와서, 쏘+아→쏘와/쭈와.

⑤ 과도음화: 놓+아→놏, 보+아도→봏도, 쏘+아도→쑈도.

(28)ㄴ은 (26)ㄴ, (27)ㄴ과 같은 ‘오/우-+ -아/어X’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현상을 보여주는데, 어간말 모음이 ‘오’나 ‘우’와는 상관없이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오/우-+ -아/어X’ 환경에서 발생하는 기존의 완전동화가 다양한 현상으로 대체되는 모습을 반영한다. 구현옥(2018 : 304)에서는 ‘꼬다’와 관련된 표면형을 세대별 편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29) ‘꼬+아서’의 함안, 통영 방언의 관련 예

지역		80대	60대	40대
함안	동부	꼬아서	꼬아서	꼬아서
	서부	까서~까아서	까서~까아서/꼬아서	까서~까아서/꼬아서
통영		까서~까아서	까서~까아서/꼬아서	까서~까아서/짜서~꼬아서

위 예에서 보듯이 80대의 경우 함안 서부와 통영 방언에서 모두 완전역행동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60대와 40대로 가면서 완전동화가 점차 사라지면서 기저 결합형이 그대로 드러나거나 w 과도음화로 대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는 완전동화가 70-80대의 노년층에서 사용되던 기체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한편 다음 예는 ‘꾸다, 누다, 두다/뚬다(置), 주다, 추다’ 등이 경험하는 완전동화와 관련된 예이다.

(30) ㄱ. 발생 지역: 울산, 양산, 부산, 김해, 밀양, 창녕, 함안, 의령,

거제, 통영, 거창, 산청, 함양, 남해, 하동.

ㄴ. 관련 어휘: 꾸+어도→꾸우도, 누+어→누우/노오, 두+어→두우/도오, 뚜+어→또오, 주+어서→주우서/조오서, 추+어도→초오도.

특징적인 것은 (30)ㄴ의 예는 대체적으로 ‘주-/조-’와 같이 복수 어간 기저형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예가 제한적이어서 정확하지는 않으나 ‘거창, 창원, 함안, 함천’ 등 경남 중부 지역의 남북을 지나는 좁은 지역에서는 ‘조-’류의 어간형이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주-/조-’ 복수 어간형과 완전동화가 보고되고 있다.

(30)ㄴ의 복수 어간 이형태의 도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sup>32)</sup> ‘주+어서’에 대한 ‘조오서’의 도출 과정에 대해 최명옥(1976 : 80)에서는 어간 모음 조정 규칙 ‘우→오’를 설정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타당성 있는 규칙이라 보기 어렵다. 신기상(1986 : 44), 박명순(1991 : 9)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제시하였다.<sup>33)</sup>

(31)  $u + \mathfrak{U}(3) \rightarrow w\mathfrak{U}(3) \rightarrow o$ :(축약에 따른 장모음화)

규칙 (31)은 공식적인 규칙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31)이 실제적인 규칙이라면 ‘ $w\mathfrak{U}(3) \rightarrow o$ ’로의 축약에 대한 공식성이 예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타당성을 위하여 신기상(1986 : 44)에서는 ‘ $k'w\wp \gg k'o\wp$ , 權利  $kw\wp ri \rightarrow konri$ ’의 예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31)

32) 이익섭(1972 : 109)의 강릉 방언 자료 ‘노:요(누어요), 꼬:(꾸어)’, 이병근(1973 : 145)의 강릉 방언 자료 ‘도:(두어), 조:(주어), 노:(누어), 가꼬(가꾸어), 쩡고(쩡구어)’, 이진숙(2010 : 41)의 진도 방언 자료 ‘노:서(눠서), 노:도(눠도)’ 등 많은 방언에서 목격할 수 있다.

33) 이에 대한 문제는 김영선(2015 : 39~41)에도 적절하게 지적되어 있다.

은 공시적인 규칙이지 통시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규칙은 아니다. 또한자의 예를 든 것도 적절한 예가 아니며 소수의 예를 통해 규칙을 일반화하기는 더 어렵다.<sup>34)</sup> 전광현(1979 : 53)에서는 ‘(?kwəp>)?kop’과 ‘(?kwənthu)>?konthu’의 예를 들고 있다.<sup>35)</sup> 이 또한 통시적인 과정이므로 공시적 규칙 (31)을 지지해 주는 예로 보기는 어렵다. 현재로서는 드러난 사실에 국한시켜 ‘꾸-/꼬-, 누-/노-, 뽀-/또-, 주-/조-, 추-/초-’ 등과 같이 쌍형어로 처리하여 도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오/우-+ -아/어X’에서 ‘낭구(餘)+ 아도→낭가아도’와 같이 2음절 이상으로 구성된 어간 활용형에서 발생하는 완전동화와 관련된 지역과 예를 살펴보자.

- (32) ㄱ. 발생 지역: 울산, 양산, 부산, 김해, 거창, 합천, 사천, 고성.  
 ㄴ. 관련 어휘: 가꾸-, 가두-, 거두-, 거두:-, 나노-, 나누-, 나수(治療)-, 낭구(餘)-, 당구(浸)-, 말루(枯)-, 맞추-, 모두-, 모둥(集)-, 바루-, 바꾸-, 바꿌(換)-, 발루(訂)-, 뽀수:-, 삭후:-, 식후:-, 시루(比肩)-, 이루(成)-, 이수(連)-, 장구(鎖)-, 전주-.

예 (32)ㄴ은 2음절 어간이 ‘오/우’로 끝나는 피동사를 포함한 활용형에서 발생하는 완전역행동화를 반영한 예이다. 어간말 음절이 종성 ‘ㅎ’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ㅎ’의 탈락에 이어 대부분의 방언에서 완전역행동화를 경험하게 된다. 특징적인 것은 어간말 음절이 초성을 가졌을 때 완전동화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34) 규칙 (31)과 관련하여 박명순(1991 : 9)에서는 ‘주+ 어도>쥬+ 어도→조+ 어도→조오도, 추+ 어도>쥬+ 어도→초어도→초오도’와 같은 예를 제시하였다. 이 경우는 복수 어간 이형태를 허용한다.

35) 박정수(1999 : 152)에서는 ‘뽕>꿍, 권하다>곤하다’ 등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이 또한 공시태에 대해 통시적 정보를 이용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



사실은 어간말 음절이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33)ㄴ의 예에서는 대부분의 하위 방언에서 ‘배우+아서→배아서’와 같이 어미의 모음 탈락을 경험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33) ㄱ. 발생 지역: 울산, 양산, 부산, 거창, 함안, 고성, 사천, 산청, 함양, 하동.

ㄴ. 관련 어휘: 고우-, 깨우-, 끼우-, 모우-, 배우-, 비우(空)-, 세우-, 싸우-, 에우-, 지우(負)-, 채우-, 치우-, 키우-, 피우-, 태우-.

예 (32)ㄴ, (33)ㄴ에서 보듯이 2음절로 이루어진 ‘오/우’로 끝나는 용언은 대부분 ‘우’로 끝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32)ㄴ에서와 같이 어간말 음절이 초성을 가질 경우에는 완전역행동화를 경험하나 초성이 없는 (33)ㄴ의 예들은 ‘배아서’와 같이 어간말 모음이 탈락한다. 이는 어간말 음절의 초성 유무가 완전동화의 실현을 결정하는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어간말 음절의 초성 유무가 완전동화의 발생 유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현재로서는 확실히 언급하기는 어렵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32)ㄴ, (33)ㄴ의 예가 모두 완전동화를 경험한 뒤 (32)ㄴ은 장모음화를, (33)ㄴ은 단모음화를 경험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장모음화와 단모음화의 규칙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우-+ -아/어X’에서 2음절 이상으로 구성된 어간 활용형이 완전동화를 경험하는 현상은 경남 방언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34)ㄴ을 통해 어간말 모음의 탈락이나 과도음화 등을 겪은 예도 확인할 수 있다.

(34) ㄱ. 발생 지역: 울산, 양산, 부산, 김해, 밀양, 함안, 고성, 사천, 진주, 함양.

ㄴ. 관련 어휘:

- ① 어간말 모음 탈락: 가꾸-, 가두-, 가루-, 공구-, 낫추-, 노누-, 담구-, 떠수-, 맞추-, 바꾸-, 뽀수-, 뽀수-, 승꾸-, 썩후-, 울구-, 일구-, 잠구-; 사우-, 시우(立)-, 키우-, 피우-.
- ② 과도음화: 깨워서, 바짜, 배와라, 싸와도~사와도, 싸왈-, 싸워서.

(34)ㄴ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방언에서 2음절 어간말 음절이 초성의 유무나 모음 ‘오/우’에 상관없이 어간말 모음 탈락을 주도적으로 겪음을 알 수 있다. 신기상(1986 : 45)에서는 ‘고우(烹)+아도, 꼬우(誘)+아도, 모우(集)+아도, 뽀우(碎)+아도, 쪼우(啄)+아도’ 등의 활용형에서 ‘과:도, 파:도, 마:도, 뽀:도, 쪼아~쪼:/쪼아도~쪼:도’의 예를 보고하고 있다. ‘과:도, 파:도, 쪼:또’의 경우에는 완전동화를 경험한 후(cf. 고아아도) 과도음화가 뒤이어 발생하고(cf. 과아도) 최종적으로 모음탈락에 뒤이은 보상적 장모음화가 발생(cf. 과: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도’나 ‘뽀:도’의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밟긴 하지만 ‘\*파, \*뽀’가 ‘ㄹ(ㅁ)-w’와 같이 [+labial] 자질의 연속을 보인다는 점에서 OCP의 제약을 위배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애/에-+-아/어X’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완전동화는 경남의 모든 하위 방언에서 발생하는 가장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이다(최명옥 1998-1 : 375~376). 반면 ‘오/우-+-아/어X’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완전동화는 (35)에서와 같이 몇 가지 제약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전형성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다. 오히려 이들 환경에서는 완전동화보다 (34)ㄴ과 같이 모음 탈락이나 과도음화 등과 같은 다양한 과정을 경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35) ㄱ. ‘오+아서’는 ‘와X’, ‘오오X’, ‘오X’, ‘아X’류로 실현되나 대부분의 방언에서 ‘와X’로 실현된다.
- ㄴ. ‘보+아서’와 같이 초성을 가진 1음절 어간 활용형에서는 두 가지의 형태를 보인다.
- 첫째는 ‘꾸+아서→꾸우서’와 같이 어간말 음절이 ‘우’로 끝날 경우 완전순행동화를 경험한다.
- 둘째는 ‘쏘+아서→싸아서’와 같이 어간말 음절이 ‘오’로 끝날 경우 완전역행동화를 경험한다.
- ㄷ. ‘쏘+아서’, ‘꾸+아서’류 활용형에서는 대부분의 하위 방언에서 완전동화보다는 기저형이 그대로 도출되거나 모음 탈락, w 과도음화, w 첨가 현상을 경험한다.
- ㄹ. ‘꾸다, 누다, 뿌다, 주다, 추다’류는 ‘꼬오도, 노오도, 또오도, 조오도, 초오도’ 등과 같이 완전동화를 경험한다. 이 경우 ‘꾸-∞꼬, 누-∞노-, 뿌-∞또-, 주-∞조-, 추-∞초-’는 복수 기저 어간, 즉 쌍형어로 처리한다.
- (36) ㄱ. 2음절 이상의 어간 활용형은 두 가지 형태를 보인다.
- 첫째는 ‘낭구(餘)+아도→낭가아도’와 같이 어간말 음절이 초성이 있는 경우 완전역행동화를 경험한다.
- 둘째는 ‘모우+아서→모아서’와 같이 어간말 음절이 초성이 없는 경우 어간말 모음 ‘우’가 탈락한다.
- ㄴ. 이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방언에서는 어간말 모음 탈락을 경험한다.

### 3.3. ‘이--+아/어X’에서의 완전동화

‘이--+아/어X’ 환경에서 실현되는 완전동화는 앞서 살펴본 다른 환경에서와 달리 특별한 제약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 환경에서 완전동화의 적용 대상은 ‘기+아서→기이서’와 같이 대부분 1음절 어간 활용형이나 2음절 어간 활용형에서도 흔히 발생한다.

- (37) ㄱ. 발생 지역: 울산, 양산, 부산, 김해, 밀양, 창원, 거창, 사천, 고성, 창녕, 진주, 산청, 함양, 남해, 하동.

ㄴ. 관련 어휘: 기(匍)-, 끼:(貫)-, 끼(霧)-, 디:(火傷)-, 디(燙)-, 띠(躍)-, 띠(走)-, 비(空)-, 비:(空)-, 비(斬)-, 비비-, 시(酸)-, 시(休)-, 씨(強)-, 씨(渴)-, 지(把)-, 지(敗)-, 째히-, 짓(作)-<sup>36)</sup>, 찌(霧)-, 찌-, 찌-, 치-, 피-, 히(白)-; 가리-, 꼬시-, 갸히-, 다치-, 따시-, 디비-, 따시-, 물리:-, 보시:(眩)-, 오리-, 이기-, 잡히-.

(37)ㄴ에서와 같이 ‘이+ -아/어X’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완전순행동화 현상은 대부분의 경남 방언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완전동화를 경험하는 어간의 음절 수는 2음절로 한정되나 대부분의 경우 1음절 어간 활용형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잡+히+어서→재피:서’와 같이 피동사의 활용형이거나 ‘찌+어서→찌이서’와 같이 어간말 종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완전동화가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1음절 어간이 ‘지, 치, 찌’일 경우에도 밀양, 창원, 고성, 산청, 하동 방언에서 완전동화가 발생하고 있다. 최명옥(1998ㄱ : 375~376)에서는 경상 방언에서 ‘이’로 끝나는 1음절 어간의 초성이 경구개음일 경우를 제외한 환경에서 완전동화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 방언에서는 앞서 (37)ㄴ의 완전동화뿐만 아니라 (38)ㄴ에서와 같이 어간말 모음 탈락, 어미모음 ‘어’ 탈락을 경험하는 예도 찾아볼 수 있다.

(38) ㄱ. 발생 지역: 울산, 양산, 부산, 창원, 함안, 거제, 사천, 통영, 남해, 산청, 함양.

36) ‘지(負)+어서→지서’(김정대 2007 : 135)와 ‘지(把)+어서→지:서’(최중호 1998 : 97~102)는 각각 창원과 고성으로 방언권은 다르지만 다른 하위 방언에 대해서도 참고 가능한 예이다. 이들 중 ‘지(負)-’류에는 모음탈락이, ‘지:(把)-’류에는 완전동화가 실현된다. 각각 고조와 저조의 성조를 가진다는 차별화가 가능하나 논의가 필요하다. ‘폐(打)-’와 ‘폐:(伸)-’, ‘깨:(破)-’와 ‘깨(醒)-’, ‘이(蓋)-’와 ‘이:(載)-’ 등이 경험하는 완전동화 현상도 성조의 차이에 의한 관련성을 참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ㄴ. 관련 어휘:

- ① 어간말 모음 탈락: 지+어도→저도, 찌+아서→찌서(蒸), 치+아서→쳐서(牧); 다치+아서→다쳐서, 빠지+어서→빠져서, 뿌리치+어도→뿌리쳐도, 자빠지+어도→자빠저도, 터지+어서→터져서, 허치(散)+어도→허쳐도.
- ② 어미 모음 탈락: 지(敗)+어서→지서, 지(負)+었→졌-, 치(打)+었→쳤-, 찌+어서→찌서, 다지(壓)+어서→다지서, 다치+어서→다치서, 조지+어서→조지서.

예 (37)ㄴ, (38)ㄴ을 바탕으로 할 때 어간말 음절이 ‘지, 치, 찌’로 끝나는 환경에서 볼 수 있는 표면형은 크게 ‘지이X류’, 지X’류, ‘저X’류, ‘저X’류<sup>37)</sup>로 나눌 수 있다. ‘지이X’류는 완전순행동화를, ‘지X’류는 어미 모음 탈락을, ‘저X’류는 OCP 제약(이경희 1995 : 413)이나 음절구조 제약조건 ‘\*σ[CGV-’를 회피하기 위하여 j 탈락을,<sup>38)</sup> ‘저X’류는 과도음화를 각각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일한 환경에서 방언에 따라, 또는 동일 방언에서도 몇 가지 현상이 동시에 실현되는 이유는 세대별 편차에서 일부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구현옥(2018 : 298)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함안의 서부 방언이 보이는 ‘저서(80대)>저서~지서(60대)>지서(40대)’, ‘찌서(80대, 60대)>찌서(40대)’, ‘쳐서(80대, 60대)>치서(40대)’나 통영 방언에서 보이는 ‘찌서(80, 60)>찌서~찌서(40)’(구현옥 2018 : 298)와 같은 예는 이 방언에서 완전동화보다 모음 탈락이 개신 과정을 주도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아/어X’의 환경에서는 어간의 음절 수에 상관없이 어미의 모음 탈락이 경남

37) 남해 방언에서는 ‘가지+어라→가져라, 바치+어도→바쳐도’의 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허진영 2016 : 53).

38) 양산 방언의 ‘내빼리+어도→내빼려도, 지+어도→저도, 치+어도→쳐도’(오종갑 2000 : 98) 등을 고려할 때 j 탈락 현상은 OCP 제약보다는 ‘\*σ[CGV-’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방언의 지배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은 (39)ㄴ의 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39) ㄱ. 발생 지역: 울산, 양산, 부산, 김해, 밀양, 함안, 거창, 창녕, 함천, 거제, 사천, 고성, 통영, 진주, 산청, 남해, 하동.<sup>39)</sup>  
ㄴ. 관련 어휘: 가지-, 개리(選)-, 껌치-, 거리-, 건나-, 그리-, 기-, 끼-, 기다리-, 꾸미-, 나자지-, 내빼리-, 내리-, 다니-, 다지-, 다치-, 달리-, 대리-, 땡기-, 돌리-, 디지-, 때리-, 따시-, 땡기-, 때리-, 편지-, 띠-, 막히-, 마끼-, 말기-, 모시-, 모이-, 몬치-, 바시지-, 뱃기-, 백히-, 버티-, 보이-, 보티리-, 부치-, 비(斬)-, 뿌지(折)-, 뻘끼-, 비비-, 사기-, 살피-, 새기(交)-, 생기(尊)-, 숙떡거리-, 시(休)-, 실리-, 썰비(盜)-, 씨기-, 씨버리-, 알리-, 애비(瘦)-, 예리(幼)-, 열리-, 이기-, 이지빼리-, 읽히-, 잡히-, 지지-, 찌-, 찌지-, 치-, 피-, 허덕거리-, 흠치-.

최명옥(1998 : 375)에서는 ‘이’로 끝나는 어간이 2음절 이상인 경우에 완전동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37)ㄴ에서처럼 ‘이’로 끝나는 1음절 어간의 활용형에서 완전동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음절 어간의 활용형에서는 (37)ㄴ과 같이 완전동화나 (38)ㄴ과 같이 어미 모음 탈락 현상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간이 3음절로 이루어진 (39)ㄴ의 활용형에서는 전적으로 어미 모음의 탈락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아/어X’의 환경에서는 1음절 어간 활용형에서만 완전동화가 유의미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

39) 동일 환경에서 거창 방언에서는 ‘이기+어도→이개도, 다치+어도→다채도, 따시+어도→따새도, 꼬시+어도→꼬새도’(박명순 1987 : 85)가, 김해 방언에서는 ‘떡+히+어서→미캐서, 마시+어라→마새라, 튀기+어→티개, 말기+어→매개, 보+이+어→보애’와 같은 예가 흔히 나타난다. 이는 어간말 모음 ‘애’가 ‘ja>e’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어간의 재구조화를 예상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있으나 이들 또한 점진적으로 어미 모음 탈락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고은(2016 : 50~51)에서는 70~80대 방언 화자와 20대 방언 화자를 통해서 ‘열려서/열리서, 열려야/열리야, 나자져서/나자지서, 나자져야/나자지야’와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앞의 예는 노년층의 발화형이며 뒤의 예는 청년층의 발화형이다. 또한 김고은(2016 : 51)에서는 의식하지 않은 발화, 빠른 속도의 발화에서는 노년층에서도 청년층과 같은 후자의 발음형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구현옥(2018 : 303)에서도 통영 방언에서 ‘이겨서(80대, 60대)>이기서, 이겨서(40대)’, ‘내려서(80대)>내리서(60대)>내려서, 내리서(40대)’를 보고하고 있다.<sup>40)</sup> 이들 현상들은 모두 ‘이-+ -아/어X’의 환경에서 어미 모음 탈락이 점진적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간주할 수 있다.

양산, 울산 방언에서는 (39)ㄴ의 사동과 피동사 활용에서 완전동화에 대해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동 활용형 ‘날+리+ 어도→날리도, 잡+ 히+ 어도→자피도’에서는 어미 모음의 탈락을 경험(신기상 1986 : 52)하나 피동 활용형 ‘날+ 리+ 어도→날리:도, 잡+ 히+ 어도→자피:도, 알+ 리+ 어도→알리:도’에서는 완전동화를 경험(신기상 1986 : 53)한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명시적으로 언급된 바 없으나 사동과 피동이라는 문법적 정보에 따라 완전동화와 모음 탈락이라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뜻한다.

‘이(載)-+ -아/어X’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도출형의 경우에는 (40)에서와 같이 대부분 ‘이X, 여X’로 실현되나 거창 방언에서는 ‘이이X’로 실현되기도 한다.

40) 구현옥(2018 : 303)에서는 ‘찌지서(80대, 60대)>찌지서, 찌져서(60대)’와 같이 반대의 예도 포함되어 있다.

- (40) ㄱ. ‘이X’류: 창원, 함안.  
 ㄴ. ‘여X’류: 양산, 울산, 사천, 합천, 산청, 고성.  
 ㄷ. ‘이X $\infty$ 여X’류: 부산, 통영 cf. (통영) 여서(80), 여서/이서(60대), 이서(40대)(구현옥 2018 : 298).  
 ㄹ. ‘이이X’류: 거창.

‘이-+ -아/어X’류는 (40)ㄹ과 같이 완전순행동화를 경험하기도 하나<sup>41)</sup> 대부분의 경우 (40)ㄴ과 같이 과도음화를 경험한다. 통영 방언에서는 청년층으로 갈수록 ‘여서’보다 ‘이서’가 주도형으로 등장하면서 (39)ㄴ과 같이 어미 모음의 탈락을 겪기도 한다. (40)ㄷ의 cf.에서 보듯이 통영에서의 ‘여서(80대)>여서/이서(60대)>이서(40대)’의 변화는 이들 음운 현상의 개신의 성격을 암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이-+ -아/어X’에서 발생하는 완전동화 현상을 경남 방언 연구 과정에서 제시된 예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 환경에서 발생하는 완전동화는 어간이 1음절로 이루어진 방언형에서 활발하게 실현되지만 2음절 이하의 환경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미의 모음 탈락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아/어X’에서 발생하는 완전동화와 관련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41) ㄱ. ‘이-+ -아/어X’ 환경에서 발생하는 완전동화는 모두 순행동화의 성격을 띤다. 이 환경에서는 ‘이’로 끝나는 1음절 어간 활용형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한 완전동화를 보이며 몇몇 방언에서는 2음절 어간 활용형에서도 실현되기도 한다.  
 ㄴ. 그러나 ‘이-+ -아/어X’에서 실현되는 주도적인 현상은 어미 모음 탈락이다.  
 ㄷ. 어간말 음절이 ‘지, 치, 찌’로 끝날 경우 도출형은 ‘지이X’류, 지X’류, ‘저X’류, ‘저X’류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경우

41) 고성 방언에서는 ‘이(蓋)+ 여서→이이서’(최중호 1998ㄴ : 108)로 실현된다. ‘이(蓋)-’와 ‘이(載)-’는 각각 저조와 고조로 실현되며 이러한 성조의 차이에서 서로 다른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양한 음운 현상을 경험한다.

- ㄷ. 특정 방언의 경우 사동 활용형에서는 어미 모음의 탈락을, 피동 활용형에서는 완전순행동화를 경험한다.
- ㄴ. ‘이(載)-+-아/어X’의 경우 ‘이이X, 이X, 여X’로 실현된다. ‘이이X’류는 완전순행동화를 반영하나 몇몇 방언에 국한된다.

## 4. 마무리

활용형에서 발생하는 완전동화 현상은 국어의 대부분의 방언에서 발견된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특정 방언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점에서 현상이 가지는 전반적인 특성을 기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경남 방언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존 논의를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완전동화의 발생 환경과 제약 조건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기존 논의와 같이 1음절 어간이 ‘애/에’로 끝날 경우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는 환경에서 완전순행동화가 가장 활발하게 실현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였다.

반면 초성을 가진 1음절 어간이 ‘오’로 끝날 경우에는 완전역행동화를 겪는 반면 ‘우’로 끝날 경우에는 완전순행동화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어간이 ‘오/우’로 끝나는 1음절 어간 활용형의 대부분은 어미 모음 탈락이나 과도음화로 대체되거나 기저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형태가 그대로 도출되기도 하였다. ‘오다’류의 경우에는 ‘오오X, 오X, 와X, 아X’류로 다양하게 실현되었으나 ‘오오X’와 같이 완전순행동화를 경험하는 방언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방언에서 ‘와X’류를 사용하였다. ‘주어서→조:서, 뚜+어서→또:서’류의 과정을 밟는 활용형에서의 완전동화는 공식적으

로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나타난 결과를 고려하여 ‘주-’와 ‘조-’ 등을 쌍형어로 처리하였다.

2음절로 구성된 어간이 ‘오/우’로 끝나는 환경에서는 어간말 음절이 초성을 가진 경우와 초성을 가지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 초성을 가진 환경에서는 완전역행동화가 나타나나 초성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어간말 모음 ‘오/우’가 탈락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언에서는 초성을 가진 경우에도 어간의 모음 탈락을 경험하였다.

어간이 모음 ‘이’로 끝나는 환경에서는 모두 완전순행동화를 경험하였다. 어간이 1음절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완전순행동화를 보여주었으며 2음절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몇몇 방언에 국한하여 완전순행동화가 실현됨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주된 현상은 어미 모음 탈락이었다.

경남 방언에서 실현되는 완전동화는 개인별, 지역별, 세대별 편차가 크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일찍부터 완전동화에 대한 기술은 이루어졌지만 관련된 제약 조건 등을 포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방언 연구에 따르는 다양한 문제점이나 한계가 존재하고 또 토착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환경에서 방언과 관련된 의미 있는 연구가 힘들 수밖에 없음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현상에 대한 대, 중방언권에서의 통합적 작업이 요구되는 것은 언어 이론에 대한 기존의 문제나 한계를 찾고 새로운 이론이나 방법론의 모색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 경남방언연구보존회. 2017. 『경남 방언 사전』. 경상남도.  
구현옥. 2018. 「함안 지역어와 통영 지역어 대조 연구」, 한글 79-2. 한글학회. 281~325쪽.

- 김고은. 2016. 「부산 지역어의 성조형과 성조 변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동은. 2015. 「경주 지역어와 하동 지역어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동은. 2018. 「사천 지역어의 공시 음운론」, 방언학 27. 한국방언학회. 39~69쪽.
- 김봉모. 1991. 「부산 동래 지역어의 특성」, 한국문화연구 4.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67~190쪽.
- 김상현. 1996. 「밀양 지역어의 모음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선. 1999. 「국어의 보상적 장모음화와 예외성」, 한글 243. 한글학회. 45~82쪽.
- 김영선. 2001ㄱ. 「부산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동남어문논집 12. 동남어문학회. 3~24쪽.
- 김영선. 2001ㄴ. 「부산 지역어의 활용과 음운 현상(1)」, 우암 어문 논집 11.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9~49쪽.
- 김영선. 2015. 「경남 방언 연구와 관련된 몇 문제」, 언어과학 연구 74. 언어과학회. 12~46쪽.
- 김영선. 2019. 「부산 방언의 완전동화 현상」, 심사 중.
- 김정대. 2007. 「산청 지역어의 성격」, 어문 논총 47. 한국 문학언어 학회. 131~183쪽.
- 김택구. 1989. 「경남 사천 지역어의 풀이씨 씨끝 ‘-아’의 음운 변동」, 대한신학교 논문집 9. 33~66쪽.
- 김택구. 1991. 「경상남도 방언의 지리적 분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택구. 1997. 「경남 사천시 서포 지역어의 음운 체계 고찰」, 한말 연구 3. 한말학회. 49~68쪽.
- 김필순. 2000. 「동래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경남대 박사학위 논문.
- 김형주. 1983. 「남해 방언의 음운 연구」, 석당 논총. 동아대 석당 학술원. 35~74쪽.
- 김형춘. 1993. 「진주 방언의 음운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덕철. 1993. 「함천 지역어의 음운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명순. 1982. 「경남 거창 방언 연구-서북지역 북상면을 중심으로-」, 청주사대 논문집 11. 청주사범대학교. 7~56쪽.
- 박명순. 1987. 「거창 지역어의 음운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 박명순. 1991. 「밀양 지역어의 보상적 장모음화」, 서원대 논문집 27. 서원대학교. 1~17쪽.
- 박정수. 1990. 「경남방언의 음운 변동 연구-거제 지역어를 중심으로-」, 진주 문화 9. 진주문화권연구소. 61~79쪽.
- 박정수. 1999. 『경남 방언 분화 연구』. 한국문화사.
- 박지홍. 1974. 「부산 방언의 연구」, 논문집 10-1. 부산교육대학교. 7~41.
- 박지홍. 1977. 「부산의 방언」, 한글 159. 한글학회. 150~205쪽.
- 배병인. 1983. 「산청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음소 체계와 용언 활용 시의 음운 현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신기상. 1986. 「동부 경남 방언의 음운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 엄태수. 1999. 『한국어의 음운규칙 연구』. 국학자료원.
- 오종갑. 2000. 「영남 하위 방언의 모음 음운 현상 대조-포항, 상주, 산청, 양산 지역어를 중심으로」, 한글 250. 한글학회. 69~116쪽.
- 이경희. 1995. 「함양 지역어의 모음 현상」, 우암 어문 논집 5. 우암어문학회. 405~425쪽.
- 이근열. 1997. 「기장 해안 지역의 음운 분화 연구」, 우리말 연구 7. 우리말학회. 105~148쪽.
- 이병근. 1973. 「동해안 방언의 이중모음에 대하여」, 진단학보 36. 진단학회. 133~147쪽.
- 이병근. 1979. 『음운 현상에 있어서의 제약』. 탑출판사.
- 이익섭. 1972. 「강릉 방언의 형태음소론적 고찰」, 진단학보 34. 진단학회. 96~191쪽.
- 이익섭. 1984. 『방언학』. 민음사.
- 이진숙. 2010. 「진도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진호. 2002. 「음운 교체 양상의 변화와 공식론적 기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효신. 2004. 「부산 방언의 음운 현상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명선. 1985. 「경남 의령 방언 연구」, 국어국문학 6, 동아대학교 국어국

- 문학과. 237~278쪽.
- 임석규. 2003. 「동남 방언의 성조소에 대한 재검토」,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회. 37~69쪽.
- 전광현. 1979. 「경남 함양 지역어의 음운론적 고찰」, 동양학 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37~58쪽.
- 정정덕. 1982. 「경남 방언의 음운 현상-거제군을 중심으로-」, 마산대학교 논문집 4. 65~82쪽.
- 주상대. 1990. 「김해 지역 방언의 조사 연구」, 부산여대 논문집 29. 5~46쪽.
- 최명옥. 1976. 「서부 경남 방언의 부사화 접사 ‘-아’의 음운 현상」, 국어학 4. 국어학회. 61~82쪽.
- 최명옥. 1998. 「현대 국어의 성조소 체계」, 국어학 31. 국어학회. 23~52쪽.
- 최범훈. 1986. 「경남 거창 위천 지역어 연구」, 논문집 19-1. 경기대학교. 7~36쪽.
- 최영순. 1996. 「함안군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중호. 1998ㄱ. 「고성 지역어의 음운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중호. 1998ㄴ. 「고성 지역어의 모음 체계와 모음동화 현상」, 석당 논총 27.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71~118쪽.
- 하신영. 2010. 「전남 곡성 지역어와 경남 창녕 지역어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한국 방언 자료집』 8.
- 한영균. 1988. 「비음절화 규칙의 통시적 변화와 그 의미」, 울산 어문론집 4.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26쪽.
- 허진영. 2018. 「한국 경남 남해 지역어에 대한 연구」,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영선

주소: [49315]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소속·직위: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누리편지: kcy1027@hanmail.net

<Abstract>

## Complete Assimilation in the Gyeongnam Dialect

Kim Young-seon

This article discusses the environment and constraints of complete assimilation which is observed in the inflection forms of the Gyeongnam dialect. In this article, the environments were divided into sections in which complete assimilation takes place: “e/ε-+ -ə/aX,” “o/u-+ -ə/aX,” and “i-+ -ə/aX.” The environment in which complete assimilation occurred and its constraints were examin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omplete assimilation was most typically realized in ending-coming environments starting with “a/ə” if the first syllable ended with “e/ε.”

Second, if the first syllable with an initial consonant ended with “o,” it experienced complete regressive assimilation, while if it ended with “u,” it experienced complete aggressive assimilation. However, most of the inflection forms of verbs in these single syllable experience vowels deleted, shortened, and otherwise manipulated the base form by combining the stem and an ending. If a stem with two syllables ended in “o/u,” a complete regressive assimilation was experienced in an environment in which the syllable at the end of the stem had consonants. Conversely, if the syllable at the end of the verb had no consonants, the ending vowel “o/u” was deleted. However, in most dialects, even if such syllables had initial consonants, the stem vowel was also deleted.

Third, when the final syllables of verbs ended with “i,” all inflection forms experienced complete assimilation. Inflection forms with one-syllable stems exhibited relatively lively complete assimilation. Inflection forms with two syllables exhibited complete aggressive assimilation in only a few dialects. The most pronounced phenomenon was the elimination of ending vowels in the Gyeongnam dialect.

\* **Key words:** Gyeongnam dialect, complete assimilation, vowel delete, lengthening, monophthongization.

〈논문 받은 날: 2019. 10. 31.〉

〈심사한 날: 2019. 11. 6.~11. 28.〉

〈실기로 한 날: 2019. 11. 29.〉